



프랑스국립

화가들의 천국 퐁피두센터 특별전

FRANCEEXPRESS
프랑스 예술축제

보도자료

Press Release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지엔씨미디어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지엔씨미디어 정용석 이사 / 02-323-9151)





프랑스국립

화가들의 천국 퐁피두센터 특별전

FRANCEEXPRESS
프랑스 예술축제

목 차

1. 전시 개요

2. 전시 의의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소장품의 한국 최초 전시**

***20세기 화가들의 눈에 비친 <천국의 이미지>**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끄는 전문가들에 의해 기획된 전시**

3. 현대미술의 심장,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4. 전시 주제 및 구성

5. 교육 프로그램

6. 관람 안내

7. 주제별 대표 작품



전 시 개 요

전 시 명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특별전 - 화가들의 천국
기 간	2008년 11월 22일 ~ 2009년 3월 22일
장 소	서울시립미술관 2, 3층 전시관
전시작품	<p>*근·현대미술 및 동시대 미술의 엄선된 대표작 79점 전시</p> <p>*<화가들의 천국-아르카디아>라는 주제하에 황금시대, 전령사, 낙원, 되찾은 낙원, 풍요, 허무, 쾌락, 조화, 암흑, 폭발 위의 점심식사 등 총 10개의 소주제로 분류</p> <p>*회화, 조각, 설치, 비디오 등 20세기 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작품 구성</p>
주요작가	피카소, 마티스, 피카소, 미로, 샤갈, 브라크, 보나르, 뒤피, 데 키리코, 피카비아, 레제, 칸딘스키, 클랭, 뒤뷔페 등 총 39명의 작가
전시총감독	디디에 오탱제 Didier Ottinger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 부관장/수석 학예연구관
주 최	서울시립미술관,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KBS
주 관	(주)지엔씨미디어, 주한프랑스문화원-주한프랑스대사관
후 원	서울특별시,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전 시 의 의

1. 세계 최고의 현대미술관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소장품 한국 최초 전시

이번 전시는 한국 최초로 개최되는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국립현대미술관 (이하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소장품展으로, 세계 최고의 근·현대미술 및 동시대 미술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명실상부한 대표작들을 선별하여 최고의 전시를 구성하였습니다. 70만 관객을 동원한 2006년의 루브르박물관展, 밀레의 <만종>을 중심으로 한 인상파 대가들의 걸작들을 선보인 2007년의 오르세미술관展에 이은 프랑스 3대 국립미술관 기획전을 마무리하는 역사적인 전시입니다.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수많은 소장품들은 20세기의 작품들은 물론, 현대미술의 최근 동향까지 보여주는 21세기 초까지의 작품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렇듯 다양한 미술 분야에서 세심하게 선별된 작품들로 구성된 소장품의 다양성은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특별전-화가들의 천국(이하 '퐁피두특별전')>는 그 기획 단계에서부터 서울시립미술관이 직접 참여하여 한국 국민들의 정서에 어울리는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 역시 한국에서 첫 번째로 열리는 역사적인 전시를 위하여 그 위상에 어울릴 최고의 소장품들을 선별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렇게 엄선된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주옥 같은 소장품 79점이 소개될 이 전시는 4개월의 기간 동안 80여 점의 유명 작품이 한국에서 최초로 전시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프랑스 양국 간의 다양한 정보 교류와 인적 교류를 통하여 그 문화적 소통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주한프랑스문화원이 주최하는 프랑스예술축제인 <프랑스 익스프레스 2008>의 대미를 장식하는 전시로서, 양국간의 문화 교류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프랑스국립

화가들의 천국 퐁피두센터 특별전

FRANCEEXPRESS
프랑스 예술축제

2. 20세기 화가들의 눈에 비친 ‘아르카디아-낙원’

*‘아르카디아’와 관련된 ‘낙원’의 이미지를
신화와 역사, 문학과의 관계를 통해 심도 있게 접근하여 구성된 전시*

이번 전시는 20세기 이후 현대 예술가들에게 ‘아르카디아’라는 낙원의 개념이 현대적 방식으로 어떻게 해석되고 표현되어 왔는지에 대하여 신화와 역사, 문학과의 관계를 통해 심도 있게 엮은 기획전입니다.

본 전시는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부관장이자 수석 학예연구관인 디디에 오탱제가 한국 전시만을 위해 지난 2년간 ‘아르카디아-천국의 이미지’라는 주제로 연구·기획한 것으로, 유럽 문화의 전통과 현대의 문화·예술을 총체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전시를 기획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다른 전시들과 차별점을 갖습니다.

전통적으로 서양의 낙원을 의미하는 ‘아르카디아’와 현대 작가들의 작품과의 예술적 교차점을 보여주기 위해 기획된 이번 전시는 20세기 대표적 작가로 불리는 피카소, 마티스, 미로, 샤갈, 브라크, 레제, 보나르뿐만 아니라, 현재 주목받고 있는 화가들의 작품 총 80여 점을 통하여 그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의 다양한 모습들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대표적인 걸작을 통하여 이 시대 화가들의 집약된 화풍과 주제 의식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세계 현대미술의 흐름을 이끄는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만드는 전시

근대와 현대의 예술 영역에서 가장 지명도 높은 문화 기관 중 하나인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는 예술의 세계화를 열어주고 있다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예술적 무대를 통하여 전세계의 문화적 요구를 더욱 새롭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전시는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수석 학예연구관인 디디에 오탱제의 기획 및 총감독 아래, 퐁피두센터의 전시장 디자이너인 카티아 라피트, 그리고 퐁피두 국립현대미술관의 작품 설치가와 복원가 등, 퐁피두센터의 전시 관련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설치 미술을 포함한 전시장의 공간 구성은 단순한 인테리어의 개념을 벗어나, 전시되는 작품과 동일시되며 전시의 주제를 함축하여 보여주는 종합예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시의 기획자이자 총감독인 디디에 오탱제와 전시장 디자이너 카티아 라피트는 이미 두 차례나 한국을 방문하여 <퐁피두특별전>을 위한 공간 구성을 새롭게 계획했으며, 이러한 노력은 전시를 찾는 한국 관람객들에게 작품의 감상을 돕고 주제를 이해하도록 도와주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가로 길이만 6m가 넘는 호앙 미로의 초대형 작품인 「어둠 속의 사람과 새」는 한국 전시를 위한 이동을 위하여, 액자에서 분리된 후 특수 제작된 실린더 박스에 담겨 들어와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다시 액자와 결합되어 설치됩니다. 이러한 작업을 위해 퐁피두센터의 복원 전문가 및 작품 설치 전문가 역시 직접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밖에도 호앙 미로의 또 다른 대형 작품인 「블루 II」, 앙리 마티스의 「폴리네시아, 하늘/바다」와 블라디미르 두보사르스키&알렉상드르 비노그라도프의 「풀밭 위의 점심 식사」 등 기존 전시에서는 쉽게 볼 수 없었던 초대형 작품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선보입니다.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퐁피두센터

프랑스 파리의 랜드마크이자 문화의 중심, 프랑스 국립 퐁피두센터

퐁피두센터는 프랑스 파리의 전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오래된 건물들 사이에서 현대적인 감각을 뽐내면서도 조화를 이루는 파리의 새로운 랜드마크 중 하나입니다. 설계자인 렌조 피아노와 리처드 로저스가 건물의 철골을 그대로 드러낸 듯 디자인하여, 개관 당시 그 파격적 외관으로 세계 건축계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퐁피두센터는 국립현대미술관과 도서관, 음향연구소, 영화관, 교육관 등 문화·예술 전반에 걸친 시설을 두루 갖춘 복합문화센터입니다.

원래 파리의 빈민촌이었던 보부르 지역은 퐁피두센터의 건립과 동시에 주요한 문화공간이자 관광지로 바뀌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여러 도시가 도시 개발의 성공 모델로 삼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2007년 5월에는 오세훈 서울시장도 퐁피두센터를 방문하여 '문화도시 서울'을 위한 재개발 우수 사례로 이곳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미술관, 전시장, 젊은이들의 아틀리에

파이프나 케이블 등이 외부로 모두 드러난 건물의 외관만큼이나 퐁피두센터는 대중에게 열려 있는 공간을 지향합니다. 퐁피두센터의 가장 주요한 활동 중 하나는 대중들이 현대미술, 즉 20세기부터 21세기의 예술을 감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977년 개관 이후 30년간 1억 8천만 명의 방문객을 맞이하였고, 초기에는 오천 명의 방문객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게 설계되었던 공간은 오늘날 네 배 이상의 관람객들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여러 번의 리노베이션을 거쳐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 550만 명의 관람객이 찾은 현대미술의 심장

통계에 따르면, 퐁피두센터는 2007년 5백 5십만 명을 맞이하면서 프랑스 내에서 루브르박물관과 에펠탑 다음으로 가장 높은 방문객 수를 기록하였습니다. 또한 뉴욕 현대미술관과 함께 가장 중요한 현대미술관의 기능을 수행함은 물론, 상설 전시장과 기획 전시장, 공연장과 영화관, 그리고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국립도서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전시 주제 및 전시 구성

화가들의 천국, 아르카디아(낙원)

‘아르카디아’는 르네상스 시대의 시인들에게 자주 인용되었던 말로, 슬픔이나 죄악, 파멸이 없는 그리스의 이상향입니다. 실제로 그리스 펠레폰네소스 반도의 지명이었던 이곳은 풀 한 포기조차 자라지 않는 삭막한 곳이었지만, 베르길리우스나 오비디우스의 고대 서사 문학 작품에서 풍요와 평화의 땅으로 묘사되면서 신화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신화 속의 아르카디아는 산 정상에 위치한 낙원으로, 그리스의 거인 신들이 살고 평야에는 반인반수인 목신이 뛰어다니며, 개울에는 물의 요정인 님프들이 사는 곳으로 묘사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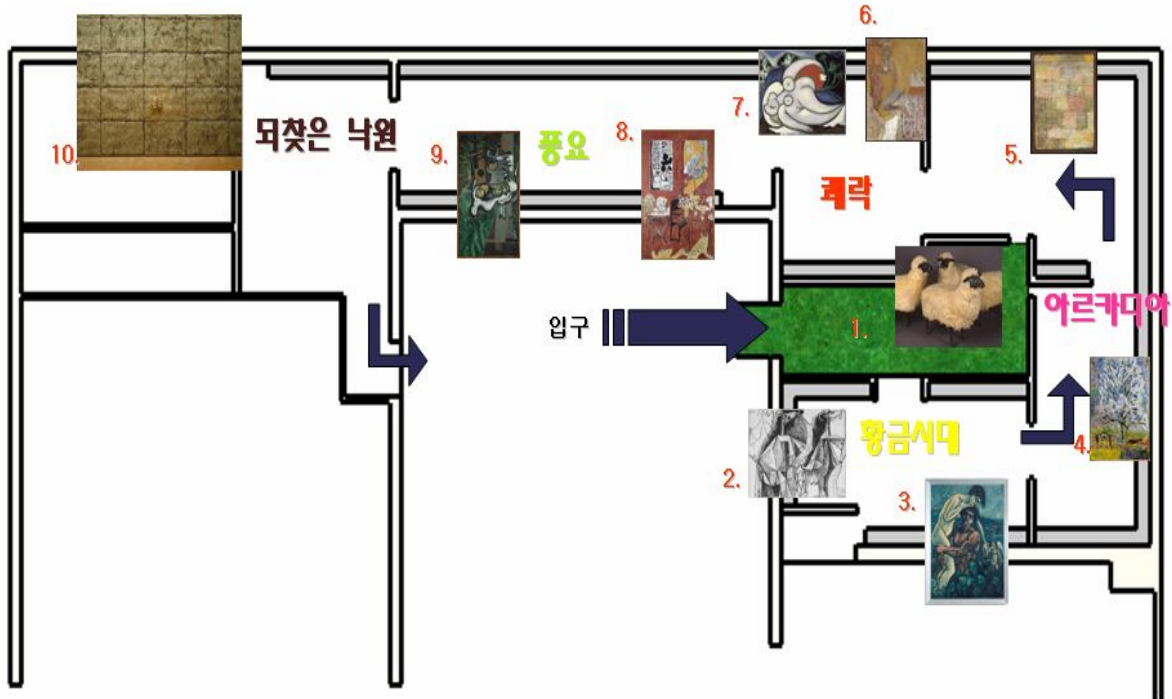
니콜라 푸생, 「아르카디아의 목자들,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있다.’

Nicolas Poussin, *Bergers d'Arcadie*, "Et in Arcadia Ego"

캔버스에 유채, 85x121cm, 파리, 루브르 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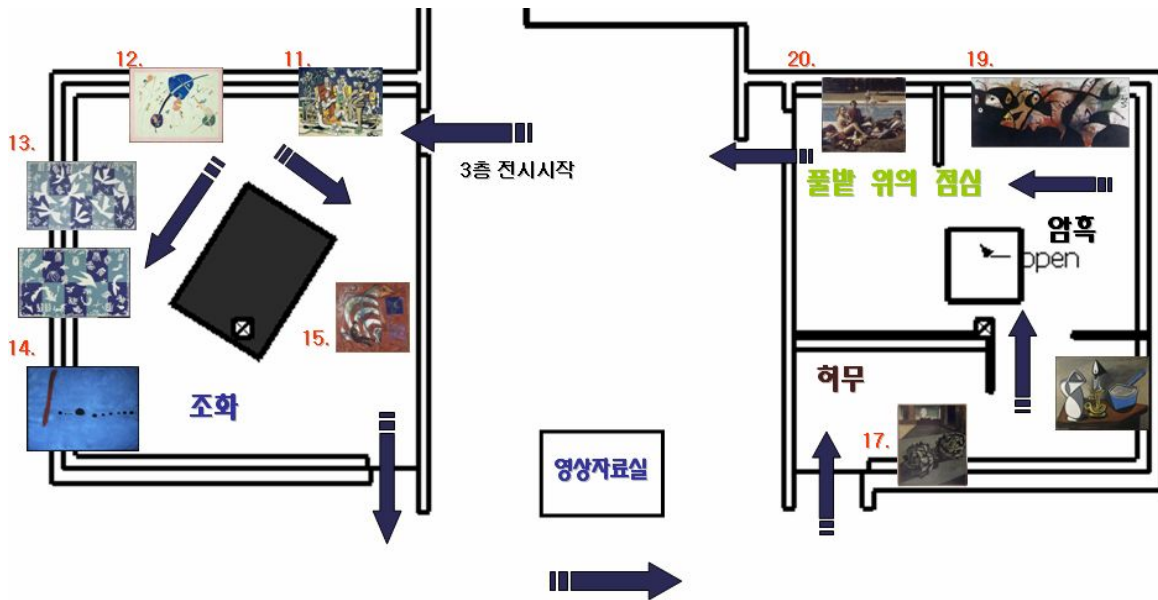
본 전시는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 목자들’이라는 작품을 근간으로 기획되었습니다. 프랑스 고전주의의 대가로 알려진 푸생은 누구보다도 아르카디아의 풍경을 자주 그렸으며, 그의 그림들을 통해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낙원 풍경의 전형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의 부제인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있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낙원에도 죽음이 존재함을 뜻하는 ‘메멘토 모리(Memento Mori)-죽음을 기억하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푸생은 이 작품을 통해 죽음의 공포보다는 아르카디아로 대표되는 평온한 세상의 서정성을 극대화시킴으로써 이상향으로 향한 인간의 희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황금시대’, ‘전령사’, ‘낙원’, ‘되찾은 낙원’, ‘풍요’, ‘허무’, ‘쾌락’, ‘조화’, ‘암흑’, ‘폴밭 위의 점심식사’ 등 총 10개의 소주제로 구성된 이번 전시는 20세기 이후의 작가들이 아르카디아, 즉 낙원을 어떤 방식으로 새롭게 해석했는지를 살펴보는 전시입니다. 각각의 소주제는 푸생의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의 작품에서 사용된 도상들을 모티프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낙원의 다양한 모습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2층 전시 구성 및 대표작품

1. 프랑수아 자비에 라란, 양떼, 1965-1979, 가변 설치
2. 파블로 피카소, 봄(습작), 1956, 33x42cm
3. 프란시스 피카비아, 봄, 1935, 캔버스에 유채, 116.5x89cm
4. 피에르 보나르, 꽃이 핀 아몬드 나무, 1946-47, 캔버스에 유채, 55x37.5cm
5. 파울 클레, 피렌체 빌라, 1926, 마분지에 유채, 49.5x36.5cm
6. 피에르 보나르, 화장하는 여인의 뒷모습, 1934, 캔버스에 유채, 107.3x74cm
7. 파블로 피카소, 누워있는 여인, 1932, 캔버스에 유채, 38x46cm
8. 조르주 브라크, 과일그릇과 식탁보 위의 과일, 1925, 캔버스에 유채, 130.5x78cm
9. 앙리 마티스, 붉은색 실내, 1948, 캔버스에 유채, 146x97cm
10. 지우세페 페노네, 그들을 들이마시다, 2000, 산화된 청동, 설치 작품



3층 전시 구성 및 대표작품

11. 페르낭 레제, 여가-루이 다비드에게 표하는 경의, 1948-1949, 캔버스에 유채, 154x185cm
12. 바실리 칸딘스키, 파랑을 향하여, 1939, 유채, 65x81cm
13.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하늘, 1946, 캔버스에 과슈로 칠한 종이 콜라주, 200x314cm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바다, 1946, 캔버스에 과슈로 색칠된 종이로 장식, 196x314cm
14. 호앙 미로, 블루 II, 1961, 캔버스에 유채, 270x355cm
15. 마르크 샤갈, 무지개, 1967, 캔버스에 아마인유, 160x170.5cm
16.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 오후의 우울, 1913, 캔버스에 유채, 56.7x47.5cm
17. 파블로 피카소, 에나멜 냄비, 1945, 캔버스에 유채, 82x106.5cm
18. 호앙 미로, 암흑 속의 새와 사람, 1974, 캔버스에 유채, 274.5x637cm
19. 알랭 자케, 폴발 위의 점심식사, 1964, 실크스크린 인쇄된 아크릴화, 172.5x196cm

교육 프로그램

1. 교육 프로그램 개요

- 진행 기간: 전시 기간 2008년 11월 22일 ~ 2009년 3월22일까지 진행
- 교육 장소: 서울시립미술관 전시장, 3층 특별전시실, 외부공간
- 교육 시간: 각 교육 프로그램 특성에 맞추어 시간 결정

□ 전시장 교육 스케줄 (11월22일~12월31일)

시 간	도슨트 (40분, 평일)	심화 도슨트 (100분, 평일)	오디오 가이드 (평일/주말)
13:30 ~ 14:10	○		수시대여 (마감시간 2시간 전까지)
14:00 ~ 15:40		○	
15:30 ~ 16:10	○		
17:30 ~ 18:10	○		
18:30 ~ 20:10		○	

□ 방학중 교육 스케줄

시 간	도슨트 (40분, 평일)	심화 도슨트 (100분, 평일)	오디오 가이드 (평일/주말)
10:30 ~ 11:10	○		수시대여 (10:00~마감2시간 전)
11:30 ~ 12:10	○		
14:00 ~ 15:40		○	
18:00 ~ 18:40	○		
18:30 ~ 20:10		○	

2. 교육 프로그램 내용

□ 영상물 상영

- 영상물 교육은 3층 특별전시실에서 계속해서 진행
- 입장은 선착순을 원칙으로 함
- 약 10분 동안 동영상 전시 설명하는 무료 교육

□ 전시장 교육

① 도슨트 교육

- 약40분 동안 전시장 작품을 보며 설명하는 무료 프로그램
- 평일(주말, 공휴일제외) 3회/일 진행 예정

② 오디오 가이드

- 주요작품(23작품)의 설명(1분이내/작품)을 개별적으로 듣는 유료프로그램 (3천원)
- 평일/주말(공휴일포함) 수시 대여 가능 (~전시마감 2시간 전까지)

③ 전시 심화 교육 프로그램 (30명이내)

- 약100분 동안 질의 및 전시장 작품 설명을 하는 심화 프로그램 (사전예약, 1만원)
- 평일(주말, 공휴일제외) 2회/일 진행 예정

□ 외부 교육

*찾아가는 도슨트

- 전시장 방문 예약된 단체(서울/수도권 지역)에 한해 예약 진행 예정
- 약 60~90분간 전시사전교육을 하는 프로그램
- 중고교/학원/동호회/기업/문화센터 등을 단체 대상



프랑스국립

화가들의 천국 퐁피두센터 특별전

FRANCEEXPRESS
프랑스 예술축제

전시 관람 안내

□ 전시기간

2008년 11월 22일 (금) ~ 2009년 3월 22일 (일)

□ 전시장소

서울시립미술관 2,3층 전시관

* 1월 1일과 매주 월요일 휴관합니다.

□ 관람시간

평일 (화~금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 관람종료 1시간 전에 티켓구매 및 입장이 종료됩니다.

□ 관람료

구분	입장료 (원)		적용범위
	개인	단체(20인 이상)	
일반	12,000	10,000	만 18세 - 64세
청소년	9,000	7,000	만 12세 - 17세
어린이	7,000	5,000	만 6세 - 11세
무료	만 65세 이상, 국가유공자, 장애인 (장애등급 3급 이상의 장애우의 경우 동반자 1인까지 무료), 미취학 아동		

□ 예매 및 문의

- 전시문의: 02) 325 ~ 1077

- 단체문의: 02) 325 1078 ~ 9

- 온라인 예매: CJ티켓, 인터파크, 티켓링크



전시 소주제 및 대표작품 소개

I. 황금시대 L'Âge d'Or

고대 시인 베르길리우스는 아르카디아를 묘사하는 자신의 글 속에서 상상 속의 아르카디아의 세계와 황금시대의 신화를 의도적으로 혼용하여 사용했습니다. 황금시대는 인류의 창조를 알리는 시기이자, 순수와 풍요, 정의와 완벽한 행복으로 가득 찬 공간으로서, 아르카디아의 시대적 원형으로 꼽히는 시기입니다.

니콜라 푸생의 「아르카디아의 목자들」에서 목자들이 손으로 가리키고 있는 비석에는 '아르카디아에도 내가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를 통해 황금시대의 신화가 재생되고 나아가 아르카디아의 개념이 구체화됩니다.

II. 전령사 Le Messenger

푸생의 작품 속에서 신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로 등장하는 '전령사' 여인은 아르카디아의 목동들로 하여금 다시 한 번 자신들이 머물고 있는 낙원의 세계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현실이 암담할수록 강해지는 유토피아적 소망은 '기억의 여신' 므네모시네(Mnemosyne)로 해석되기도 하는 작품 속의 여인을 통해, 과거에 대한 향수를 넘어서 미래적 삶에 투자되어 이상향을 꿈꾸게 합니다.

III. 낙원 L'Arcadie

그리스 중부 지역에 실존했던 지역인 아르카디아는 척박한 산악 지형으로 사람이 살기 힘든 곳이었지만, 베르길리우스는 이 장소를 '축복과 풍요의 땅'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목신을 땅의 신으로 모시고, 시와 노래가 끊임없이 흐르는 풍요의 땅으로 변모한 베르길리우스의 아르카디아가 푸생에 의해서 다시 한 번 낙원의 이미지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현대 예술가들은 프랑스의 남부 지방을 자신만의 아르카디아, 즉 낙원으로 여기며 강렬한 태양 아래 자리잡은 풍요로운 경치를 그림으로 승화시키고자 했습니다.

IV. 되찾은 낙원 L'Arcadie Retrouvée

이 부분은 현대적 아르카디아와 전통적 신화 속 아르카디아의 만남과 화해를 의미합니다. 지우제페 페노네의 설치 작품인 「그들을 들이마시다」로 대표되는 '되찾은 낙원'을 통해 1960년대 현대화의 흐름 속에 나타난 자아의 추구, 오염되지 않은 자연 속에서 근원을 찾는 것은 현재까지 끊임없이 재해석된 아르카디아가 결국 과거의 그것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줍니다.

V. □풍요 L'Abondance

푸생은 두 가지 버전의 「아르카디아 목자들」을 그렸는데, 첫 번째 그림에서는 아르카디아의 풍요로움을 강조하기 위하여 실제로 그곳을 가로질러 흐르던 알피오스 강을 그리스 신화 속 강의 신인 '알페이오스'로 의인화하여 표현했습니다. 아르카디아를 상징하는 여러 가지 도상들 중 하나인 강물을 통해, 다시 한 번 아르카디아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폴 세잔 이후 현대 예술가들에게 나타난 정물에 대한 관심은 한 세기를 거쳐 꾸준히 이어져 왔습니다. 이러한 정물화 속의 과일이나 음식들을 통해서 우리는 여유롭고 풍요로운 아르카디아의 또 다른 면모를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VI. 허무 La Vanité

푸생이 그린 두 점의 「아르카디아 목자들」은 모두 낙원에도 죽음이 존재한다는 메시지인 '메멘토 모리(Memento Mori)'를 상징하는 우의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상의 쾌락에 대한 덧없음과 종말에 대한 명상을 나타내는 전통적 소재인 두개골은 작품 속의 비석에 새겨진 글, 'ET IN ARCADIA EGO(나 역시 아르카디아에 있었노라)'와 함께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다시 말하면 '죽음과 그에 따르는 슬픔이 인간의 이상향인 아르카디아에도 존재하니 인간들은 항상 죽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라는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이는 죽음이 가지고 있는 허무와 더불어 인간과 영원히 함께 하는 사색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VII. 쾌락 La Volupté

이상향을 통하여 우리는 때때로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꿈들을 실현시키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아르카디아는 이상향인 동시에 인간의 욕망의 분출구로서, 현세에서 이루지 못한 자신의 욕망을 담는 그릇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푸생의 첫 번째 작품 속에 등장하는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은 이러한 이상향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으로, 현대의 작가들은 '여인'의 다양한 형상을 통해 자신들의 이상향을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VIII. 조화 L'Harmonie

«군대의 도움 없이도 사람들은 안전하고 평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비옥한 옥토는 곡괭이질을 하지 않아도 많은 과일을 선사해 준다. 사람들은 아무런 수고 없이 수확을 얻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간다. 봄날은 영원하고 잔잔한 서풍은 종자 없이 태어난 꽃들을 부드럽게 쓰다듬는다.»

오비디우스의 묘사에 드러난 것처럼 아르카디아는 단순하게 어느 한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하나의 완결된, 완벽한 세상과 맞닿아 있으며, 조화로운 세계의 원형적 모델로 볼 수 있습니다.

완벽한 푸르름을 지닌 하늘은 현대의 예술가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공간일 뿐만 아니라, 꿈꾸는 세계를 가장 조화롭게 표현할 수 있는 영감을 준 소재입니다.

IX. 암흑 La Nuit

비석을 가리키는 목자의 밑으로 드리워진 그림자는 아르카디아라는 지상 낙원에 드리워 있는 '죽음'을 암시하는 상징으로, 어둠과 죽음의 이미지를 동시에 보여줌으로써 우리들에게 평화와 안락에 대해서 다시금 일깨우게 합니다.

현실이 고되고 힘들수록 인간의 이상향에 대한 열망은 더욱 강해집니다. 현대의 작가들 역시 이러한 어둠의 이미지의 강조를 통해 이상향을 꿈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며, 새로운 이상향 창조의 희망을 보여줬습니다.

X. 풀밭 위의 점심식사 Le Déjeuners sur l'Herbe

에두아르 마네의 「풀밭 위의 점심식사」는 현대적인 유행과 도시적 쾌락주의, 목가적 열정에 대한 '현대성'을 고전의 '영원불멸성'과 조화시키며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작품입니다.

현대 미술의 문턱에서, 피크닉이라고 할 수 있는 '풀밭 위의 점심식사'라는 소재는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있는 황금시대, 즉 아르카디아의 꿈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프롤로그 Prologue



프랑수아 자비에 라란, 「양 떼」, 1965-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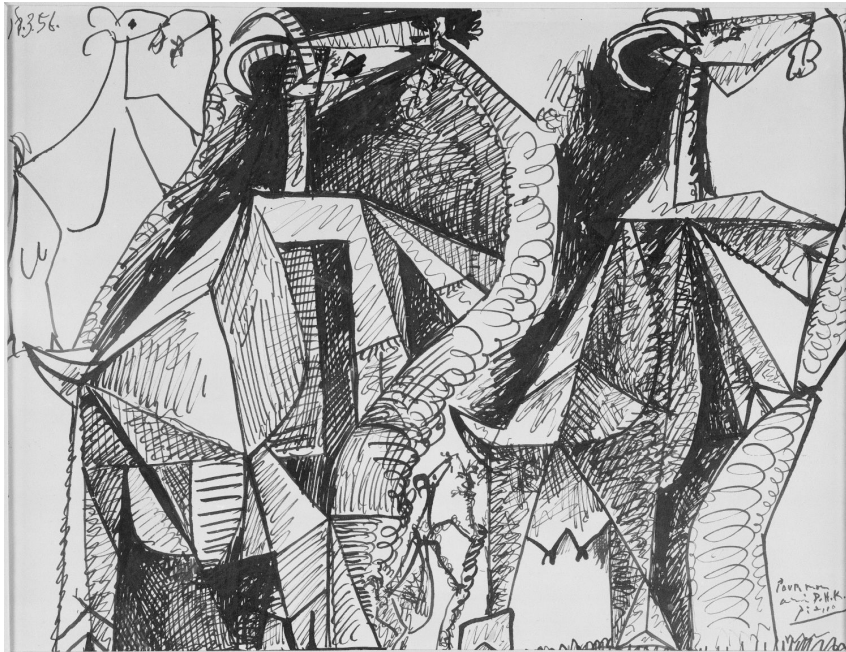
François-Xavier Lalanne, *Troupeaux de moutons*

©François-Xavier Lalanne / ADAGP, Paris – 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Philippe Migeat/GNC media, Seoul, 2008

현대 미술이 시작된 이후로 동물이라는 소재가 작품의 주제로 다루어지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동물을 주제로 하여 많은 작품을 만들었던 프랑수아 자비에 라란은 많은 주목을 받는 작가입니다. 이 작품은 '낙원' 속에 자주 등장하는 양 떼를 통하여 시와 음악이 총만했던 아르카디아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시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I. 황금시대 L'Âge d'Or



파블로 피카소, 「'봄'을 위한 습작」, 1956

Pablo Picasso, *Etude pour 'Le printemps'*, 33x42cm

©2008-Succession Pablo Picasso-SACK (Korea)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GNC media, Seoul, 2008

파블로 피카소는 제1차세계대전이라는 전쟁의 암흑기를 보내면서, 황소의 머리에 사람의 몸을 가진 무서운 괴물인 '미노타우르스'를 자주 그리며 당시의 비극적 상황을 표현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다시 찾아온 평화로운 시기를 만끽한 그는 '목신'과 요정들과 같은 새로운 모티프를 그리며 '목가적인 낙원'의 모습을 그림 속에 담고자 했습니다.

II □ 전령사 Le Messenger



프란시스 피카비아, 「봄」, 1935

Francis Picabia, *Printemps*, 116.5x89cm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GNC media, Seoul, 2008

프란시스 피카비아는 평생 다양한 형태의 회화 방식을 연구하고 표현하고자 노력했던 화가입니다. 특히 그의 '야수성'이 강한 화풍을 엿볼 수 있는 이 작품은 붉은 붓으로 그린 검은색 윤곽선에 의해 색의 느낌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데, 마치 성당이나 교회의 창문에서 볼 수 있는 '스테인드글라스'와 같은 느낌을 줍니다. 피카비아는 이 작품을 통하여 목가적이면서도 동시에 상징적인 형상을 모두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III. 아르카디아 L'Arcadie



피에르 보나르, 「꽃이 핀 아몬드 나무」, 1946-1947

Pierre Bonnard, *L'amandier en fleurs*, 55x37.5cm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GNC media, Seoul, 2008

인상주의의 마지막 화가라고도 불리는 피에르 보나르는 자신의 집 정원의 풍경을 소재로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빛을 발하는 듯 화사하고 풍성하게, 그리고 자유로운 표현법으로 그려진 이 작품은 보나르가 1946년에 그리기 시작하여 1947년에 마무리한 그의 생애 마지막 작품입니다. 자유로운 붓 터치를 통하여 만발한 꽃과 뻗어난 나뭇가지를 표현했으며,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감정을 충실히 드러냈습니다.

III □ 아르카디아 Arcadie



파울 클레, 「피렌체 빌라」, 1926

Paul Klee, *Villas florentines*, 1926, 49.5x36.5cm

©Photo CNAC/MNAM, Dist. RMN-Bertrand Prévost/GNC media, Seoul, 2008

파울 클레는 1920년대에 파리에서 활동한 작가들 중에서 가장 빨리 명성을 얻은 독일 출신의 화가입니다. 두꺼운 석회 반죽 위에 깊고 얇은 선을 파내는 기법으로 제작된 이 작품은, 위에서부터 아래 부분까지 많은 선들을 교차시킨 후 그 위로 색을 칠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표면으로 인해 생긴 음영, 색이 칠해진 부분과 선이 새겨진 부분들이 섞이면서 하나의 새로운 작품이 탄생한 것입니다.

IV. 되찾은 아르카디아 L'Arcadie Retrouvée



지우제페 페노네, 「그늘을 들이마시다」, 2000

Giuseppe Penone, *Respirer l'ombre*

©Giuseppe Pénone / ADAGP, Paris – 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Philippe Migeat/GNC media, Seoul, 2008

1960년대의 공업화 속에서 이탈리아 북부 출신의 예술가들은 자연의 진화와 형태, 상징성에 대해 연구했는데, 이들을 가르켜 '아르테 포베라'라고 불렀습니다. 지우제페 페노네는 아르테 포베라의 중심에 서 있는 작가로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자연의 순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고요함이 흐르는 전시실에 들어서는 순간, 벽에 걸린 페 모양의 조형물과 은은하게 퍼지는 월계수의 향을 통해 스스로 호흡하고 있는 작품의 생명력을 느끼며 그 숭고함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V. 풍요 L'Abondance



조르주 브라크, 「과일그릇과 식탁보 위의 과일」, 1925

Georges Braque, *Fruits sur une nappe et compotier*, 130.5x78cm

©Georges Braque/ADAGP, Paris-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GNC media, Seoul, 2008

이 커다랗고 고전적인 정물화는 조르주 브라크의 1920년대 작품 세계를 종합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수많은 수집가들이 탐을 냈던 작품입니다. 악기와 악보, 과일 그릇 위에 놓인 과일 등 전통적인 정물화 소재들이 주름진 하얀 식탁보 위에 놓은 채 화면의 중심을 채우고 있는데, 하얀 식탁보로 인해 정물들은 화면에서 동떨어진 것처럼 도드라져 보입니다. 사물마다 얇은 하얀색 테두리 선으로 마무리를 함으로써 그 색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표현한 것도 특징적입니다.

V. 풍요 L'Abonda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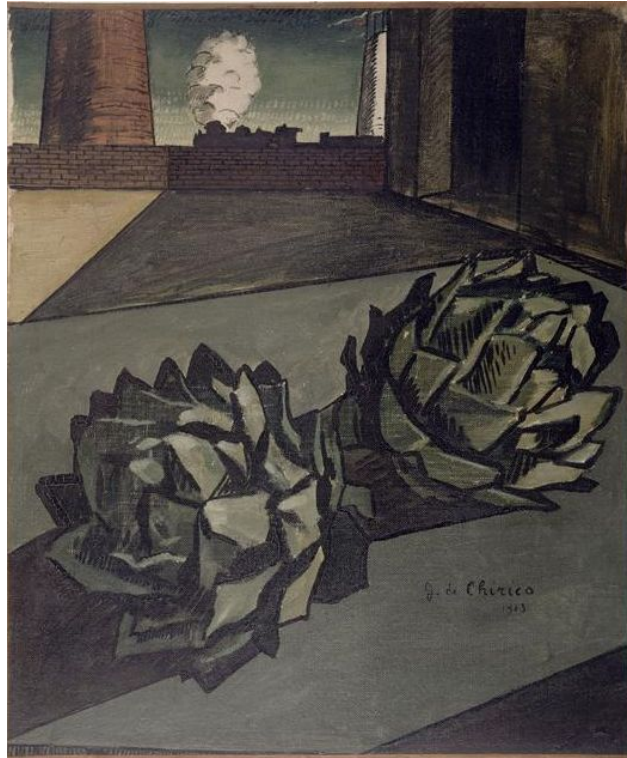
앙리 마티스, 「붉은색 실내」, 1948

Henri Matisse, *Grand intérieur rouge*, 146x97cm

©Photo CNAC/MNAM, Dist. RMN-Jean-Claude Planchet/GNC media, Seoul, 2008

1948년 봄에 완성된 이 작품은 앙리 마티스가 그린 '실내' 연작 중 마지막 작품일 뿐만 아니라, 마티스의 작품 세계가 가장 잘 표현된 총체적인 작품입니다. 세심한 구성이 돋보이는 이 작품은 모든 소재가 한 쌍씩 쌍을 이루고 있습니다. 벽에는 직사각형의 회화와 데생이 양쪽으로 걸려 있고, 바닥에는 두 개의 테이블과 두 개의 모피 양탄자가 있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마티스는 데생의 고유한 특성을 살리면서 색과의 조화 또한 성공적으로 이루어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VI. 허무 La Vanité



지오르지오 데 키리코, 「오후의 우울」, 1913

Giorgio De Chirico, *Mélancolie d'un après-midi*, 56.7x47.5cm

©Giorgio De Chirico/by SIAE-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Jean-Claude Planchet/GNC media, Seoul, 2008

작품 속 환상적인 동시에 음울한 느낌은 서로 부조화를 이루고 있는 여러 소재들을 통해 극대화되고 낮은 톤의 색채는 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징성이 보이는 소재들 중 이 작품 속에 나오는 철로 된 아티초크의 형상은 남성의 성적 강인함을 대변하고 있으며, 이는 뒤로 보이는 큰 굴뚝을 통해 다시 그 의미가 확인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VII. 쾌락 La Volupté



파블로 피카소, 「누워 있는 여인」, 19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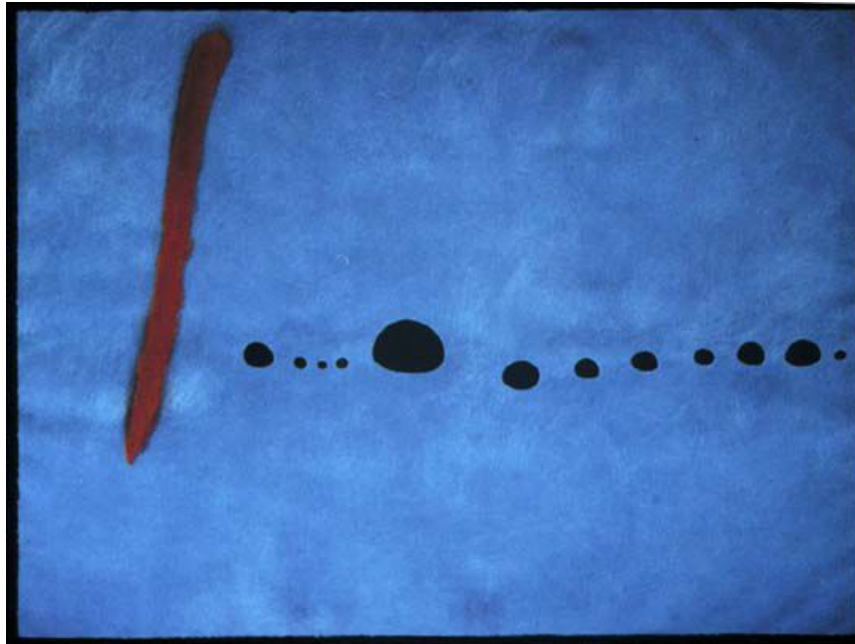
Pablo Picasso, *Femme couchée*, 38x46cm

©2008-Succession Pablo Picasso-SACK(Korea)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 / GNC media, Seoul, 2008

20세기의 가장 유명한 화가로 불리는 파블로 피카소는 평생에 걸쳐 다양한 주제를 그림으로 표현했는데, 특히 이 작품은 여인의 풍만함과 육감적인 모습에 큰 매력을 느끼고 이를 표현한 것입니다. 연인이었던 마리 테레즈 월터가 깊은 잠에 빠져 있는 모습을 그린 이 작품은 너울거리는 듯한 형태와 색채를 통하여 관능적인 여인의 모습을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VIII. 조화 L'Harmonie



호앙 미로, 「블루 II」, 1961

Joan Miró, *Bleu II*, 270x355cm

©Successió Miró/ADAGP, Paris-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Philippe Migeat / GNC media, Seoul, 2008

호앙 미로는 1960년부터 1961년 사이에 파란색을 주제로 한 세 점의 작품을 완성했는데, 이 '블루' 연작들은 그의 예술 세계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주처럼 넓은 캔버스의 파란 공간은 밤과 낮을 동시에 느끼게 해 주는 창공의 빛들이 가득 들어차 있는 것만 느낌을 주며, 그 위로는 점, 혹은 선과 같은 진하고 작은 표시들이 그려져 있는데, 이러한 검고 붉은 작은 요소들은 미로의 오랜 준비 과정을 통해 탄생한 것입니다.

VIII. 조화 L'Harmonie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하늘」, 1946

Henri Matisse, *Polynésie, Le ciel*, 200x314cm

©Photo CNAC/MNAM, Dist. RMN-Jean-Claude Planchet / GNC media, Seoul, 2008



앙리 마티스, 「폴리네시아, 바다」, 1946

Henri Matisse, *Polynésie, La mer*, 196x314cm

©Photo CNAC/MNAM, Dist. RMN-Jean-Claude Planchet / GNC media, Seoul, 2008

이 작품에서 사용된 모티프는 앙리 마티스가 타히티 여행의 추억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것으로, 이 원안을 제작하기 위해 마티스는 특유의 '종이 오려 붙이기'와 페인팅을 결합시켜 각 모티프들이 가지고 있는 경쾌함을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원래 태피스트리의 원안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이후, 태피스트리가 만들어질 때도 원안이 가진 미묘한 뉘앙스를 살리기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썼다고 전해집니다.

VIII. 조화 L'Harmonie



바실리 칸딘스키, 파랑을 향하여, 1939

Vassily Kandinsky, *Vers le bleu*, 65x81cm.

©Photo CNAC/MNAM, Dist. RMN-Droits réservés / GNC media, Seoul, 2008

이 작품은 행성과 별들이 떠다니는 것 같은 우주의 기묘한 형상을 묘사하고 있는데, 각각의 별들 위에는 달이나 로켓과 같은 기하학적 요소들이나 작은 집들이 걸려있습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색색의 요소들은 활기찬 운율 속에서 중앙의 푸른색 점을 향하여 모여들고 있으며, 이는 물결치는 듯한 선들로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VIII. 조화 L'Harmonie



마르크 샤갈, 무지개, 1967

Marc Chagall, *L'arc-en-ciel*, 160x170.5cm.

©Marc Chagall/ADAGP, Paris-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Philippe Migeat / GNC media, Seoul, 2008

작품 속 무지개의 테마는 1950년 이후에 마르크 샤갈이 살았던 프랑스 남부의 작은 도시 방스에서 구상된 것입니다. 이 지역의 아름다운 해변인 코트다쥐르는 보나르나 마티스, 피카소에게 그려졌듯이, 샤갈에게도 새로운 아르카디아, 즉 낙원이었습니다. 강렬한 붉은 단색 배경을 가르는 듯한 무지개의 흰색 빛은 샤갈의 환상 속 풍경과 인물을 비추는 역할을 하며, 도시의 정경이나 달빛 속의 연인, 에펠탑, 노트르담 사원의 종루 등은 1920년대에 파리에 머물렀던 샤갈이 기억 속 향수를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II. 조화 L'Harmonie



페르낭 레제, 「여가-루이 다비드에게 표하는 경의」, 1948-1949

Fernand Léger, *Les Loisirs-Hommage à Louis David*, 154x185cm

©Photo CNAC/MNAM, Dist. RMN-Jean-François Tomasian/GNC media, Seoul, 2008

피카소와 브라크를 잇는 입체주의 대표적인 화가인 페르낭 레제는 이전의 입체주의 화가들의 작품들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해석하여 독창적인 입체주의를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말년에 이르러 대형 화폭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이 작품과 「시골의 야유회」는 그의 대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제는 작품 속에서 피크닉을 즐기는 사람들을 통해 새로운 황금시대를 꿈꾸는 이 시대의 아르카디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IX. 암흑 La Nuit



호앙 미로, 「어둠 속의 사람과 새」, 19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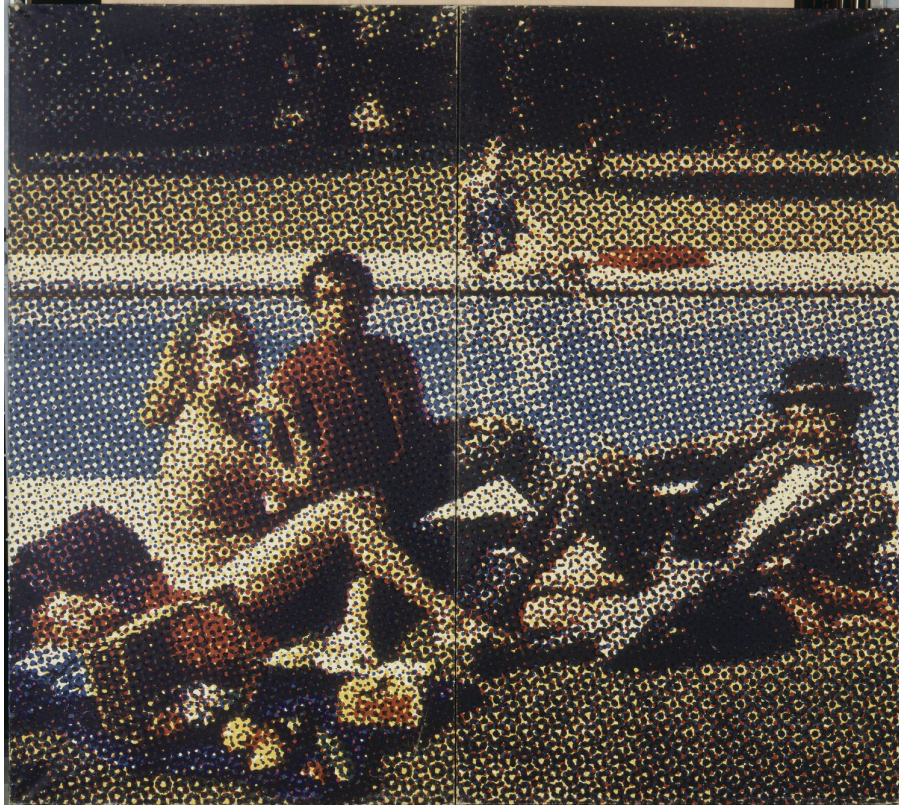
Joan Miró, *Personnage et oiseaux dans la nuit*, 274.5x637cm

©Successió Miró / ADAGP, Paris – 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Philippe Migeat / GNC media, Seoul, 2008

호앙 미로는 스페인의 바다가 내려다보이는 아틀리에에서 제작한 이 대형 작품을 통하여 자신만의 독창적인 '우주적 환상'을 펼쳐 보였습니다. 가로로 긴 넓은 화면 위에 마치 흙탕물이 튕겨나간 것과 같은 얼룩들이 이어져 있는데, 힘차고 거친 느낌의 얼룩들은 시적인 느낌을 강조합니다. 마치 공간의 완전한 주인처럼 활과 같은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서 날고 있는 새는 그림 전체를 지배하는 통치자처럼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작품은 그 길이가 6미터에 달하는 초대형 작품으로 한국 전시를 위해 프레임과 분리, 특수 운송되어 들어온 후 퐁피두센터의 작품 복원가 및 설치가가 직접 다시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X. 풀밭 위의 점심식사 Le Déjeuner sur l'Herbe



알랭 자케, 「풀밭 위의 점심식사」, 1964

Alain Jacquet, *Le déjeuner sur l'herbe*, 172.5x196cm

©Alain Jacquet/ADAGP, Paris-SACK, Seoul, 2008

©Photo CNAC/MNAM, Dist. RMN-Jacques Faujour / GNC media, Seoul, 2008

알랭 자케는 미술사 속의 아이콘들이나 대중문화의 이미지를 풍자적으로 겹쳐 놓는 방식으로 많은 작업을 했는데, 특히 이 작품은 그 제목이나 구성에서 알 수 있듯이 마네의 작품 '풀밭 위의 점심식사'를 차용하여 기계적 과정을 통해 제작한 것입니다. 이 작품은 인쇄할 때 만들어진 망점으로 인하여, 그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미지의 형태가 흐릿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기계적인 생산 라인을 통하여 다량으로 작품을 제작한 알랭 자케는 "원작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전통적인 미술의 개념을 무너뜨린 화가입니다.



프랑스국립

화가들의 천국 퐁피두센터 특별전

FRANCEEXPRESS
프랑스 예술축제

감사합니다.

(이미지 게재시에는 작품의 하단에 있는 붉은색 카피라잇 라인을 반드시 삽입해 주세요.)

저작권 관련 문의 / 한국미술저작권관리협회 김태은 대리 (02 325 3824)

